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1-2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형통함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럴 때 일수록 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도 보지 못했을 것이며, 드넓은 바다와 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시 136:1)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천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2.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인생을 참 허망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확신이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투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도 선물로 주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투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체질화 시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3. 감사가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3 가지 생활 강령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뿐인 우리 인생을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 하시고, 체질화 하십시오. ‘범사에’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체질화 시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감사는 찾아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36편 1절 말씀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그를 보고 모든 식구들이 놀랐으나, 매튜 헨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로,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천국만은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의 지갑이 아닌 제 지갑을 도둑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할 것이 없고,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삶의 여건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감사도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함께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헌신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은 실제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상황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는 빠져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주어진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 감사에 대한 세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밑줄 부분 참고) 자세히 보면, 그 지침들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가지 지침에 대해 함께 나눠 봅시다.
2. 오늘 목장교재 2 페이지에는, ‘감사가 체질화 되기 위한 두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두가지 중 나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3. 올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 목장 식구들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